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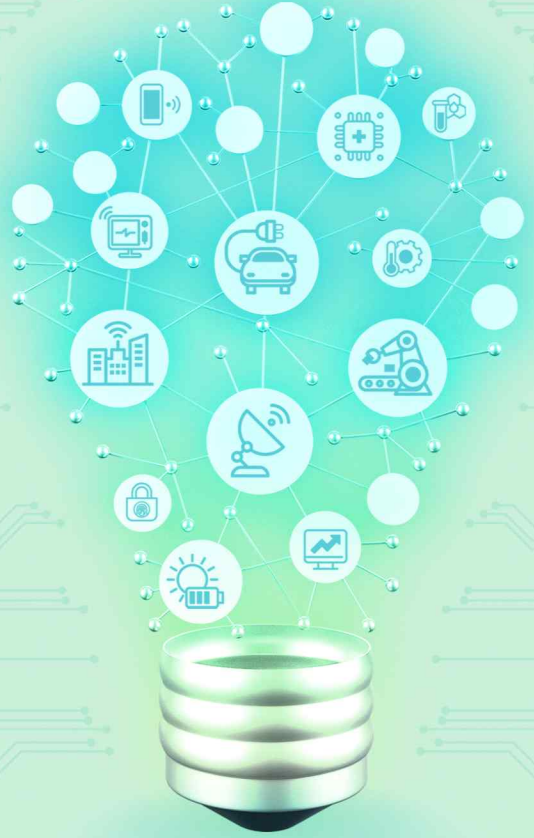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녹십자엠에스(142280)

제약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박도연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녹십자엠에스(142280)

체외진단/혈액투석액 기반 헬스케어의 강자

기업정보(2021/09/30 기준)

대표자	안은억
설립일자	2003년 12월 29일
상장일자	2014년 12월 17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체외진단용의약, 진단시약, 의약품, 혈액투석액, 의료기기

시세정보(2022/01/11 기준)

현재가(원)	6,94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466
발행주식수	21,117,283
52주 최고가(원)	15,000
52주 최저가(원)	6,530
외국인지분율	0.57%
주요주주	(주)녹십자

■ 현장 체외진단 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녹십자엠에스(이하 동사)는 1972년 녹십자의 진단사업 부분으로 시작하여 2003년 진단시약 분야 독립법인으로 설립, 2014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국내 진단사업 분야를 이끌어 왔다. 체외진단 시약/의료기기와 혈액투석액 판매를 통해 주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체외진단 중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ing)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진단키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화혈색소 측정기(Greencare A1c)나 콜레스테롤 측정기(Greencare Lipid) 등을 개발하여 해외 4개 업체와 약 550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검출 가능한 질병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내분비 질환, 대사성 질환, 순환기 질환)에 대한 검출 기술로 개발도상국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 국내 혈액투석액 시장점유율 1위 기업

동사는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혈액투석액을 생산, 판매하여 국내 시장의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동사 조사). 용인과 음성에 혈액투석액 생산을 위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성 공장에서만 연간 410만 개의 혈액투석액을 생산할 수 있다. 세계적 헬스케어 기업 Baxter와 혈액투석액에 대한 국내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2017년 5월부터 약 10년간 보령제약과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와 수익성 증가를 꾀하고 있다.

■ 계열사/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미래사업 확장

동사는 녹십자 계열사나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 보유한 체외진단 사업 및 혈액투석액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COVID-19에 대한 대응 및 진단제품을 개발했으며, 현재 안과 질환, 조기 암진단,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혈액 정화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712	(27.6)	(53)	(7.5)	(112)	(15.8)	(55.5)	(18.0)	281.6	(957)	1,376	N/A	7.4
2019	815	14.4	(30)	(3.7)	(164)	(20.1)	(49.9)	(21.4)	75.0	(1,311)	2,353	N/A	2.2
2020	1,134	39.1	42	3.7	72	6.3	12.7	7.4	81.6	318	2,680	49.4	5.9

기업경쟁력

체외진단, 혈액투석 관련 다양한 제품

■ 체외진단 시약 및 기기

- COVID-19: GENEDIA W COVID-19 RT-PCR(분자검사), GENEDIA W COVID-19(면역검사) 등
- 당뇨: 그린닥터, Greencare A1c 등
→ 추후 POCT를 중심으로 제품을 추가할 계획

■ 혈액투석액

- HD Sol-BCGA

기확보된 국내외 매출 인프라

■ POCT 기기

- Greencare A1c(당뇨)의 약 437억 원 수출계약 (중국, 인도, 스위스, 일본 등의 4개사)
- Greencare Lipid(콜레스테롤)의 약 115억 원 수출계약 (중국 Horron)

■ 혈액투석액

- 세계적 헬스케어 기업 Baxter와 국내 공급계약(~2023년 12월)
- 보령제약에 공급계약(2017년 5월부터 10년간)

핵심기술 및 기술사업 확장

핵심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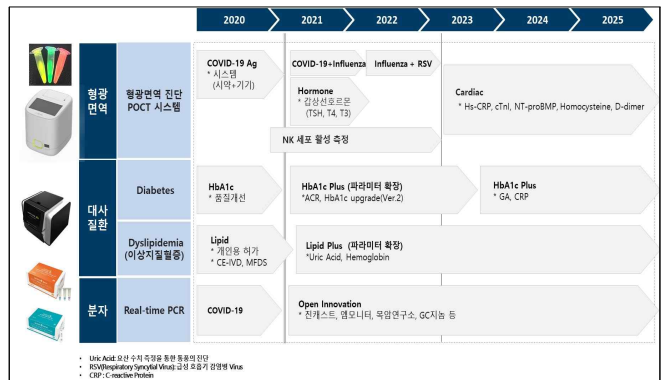
■ POCT 기기 개발 기술

- 금속 나노 교상체 및 인터칼레이팅 약물을 이용한 핵산 검출 기술, 핵산과 시호 프로브의 동시 등온 증폭을 이용한 핵산 검출 기술, 멀티 인플루엔자 검출키트 제조 기술, 혈중 지질 측정용 스트립 제조 기술 등

■ 혈액투석액 생산 기술

- Na⁺, K⁺, Ca²⁺ 등의 이온 조성과 pH가 정상적 혈액과 유사한 액체 생산 기술

계열사/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 당사는 환경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한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품 제조 과정 중 온실가스 관리나 에너지 용수 사용 관리에 우수하여 ISO14001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음.
- > 당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약 24%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파악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및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전자투표제 등 주주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25%이며, 감사를 따로 두고 있으나 감사업무 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명시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평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체외진단용 기기 및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녹십자엠에스는 체외진단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체외진단용 시약 및 의료기기와 함께 글로벌 진단기기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추후 POCT를 중심으로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투석액 사업으로 기술사업의 다각화에 성공했다.

■ 개요 및 사업 현황

녹십자엠에스(이하 동사)는 체외진단 시약 및 기기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설립되어 2014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녹십자 계열회사이며 자체적인 체외진단 시스템(시약, 키트 및 기기)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이 외에도 혈액투석액 사업의 국내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외진단이란 체액, 혈액, 분뇨, 침 등 인체에서 유래된 검체를 이용해 몸 밖에서 질병을 신속하게 하는 진단하는 기술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괄에 안은 역 대표이사과 경영담당 윤동현 이사, 생산총괄 이호림 이사 등의 경영진과 박사급 4명, 석사급 10명, 학사급 4명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인력 포함, 2021년 9월 기준 156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동사는 면역진단팀, 생화학센서팀, 기기개발팀, 연구관리팀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외진단사업과 혈액투석액에 대한 매출성장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표 1. 상위 2개 사업 부문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비율
체외진단사업 (의료기기)	제품	진단시약	22,199 24.76%
		당뇨	7,327 8.17%
	상품	진단시약	37,358 41.66%
		홈헬스케어	4,406 4.91%
혈액투석액(의약품)		14,595 16.28%	
총 매출실적		89,667	

*출처: 3분기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사업부문 및 기술 현황

동사는 80년대 B형간염 항원/항체 진단시약 개발을 시작으로 유행성 출혈열, AIDS, B형간염, 혈액 또는 성 매개 감염성 질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시약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Real-time PCR을 이용한 분자진단시약으로 결핵균, 갑상선암, 대장암, COVID-19 등에 대한 검출키트를 개발하였고, 2015년에는 현 녹십자메디스를 인수하여 당뇨 관리를 위한 혈당 및 HbA1c 측정 기기 및 시약을 동사 사업 영역에 포함시켰다.

동사는 자체 진단기기 제품 외에도 Boehringer Mannheim(독일), Kimberly-Clark(미국), ThermoFisher(미국) 등 해외 진단 업체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단기기 및 시약을 판매하며 제품 및 상품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외진단 분야 중에서도 POCT를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금속 나노 교상체 및 인터칼레이팅 약물(이중가닥 핵산의 염기쌍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소수성 화합물)을 이용한 핵산 검출 기술, 핵산과 신호 프로브의 동시 등온 증폭을 이용한 핵산 검출 기술, 멀티 인플루엔자 검출키트 제조 기술, 혈중 지질 측정용 스트립 제조 기술 등 다양한 POCT 진단키트 제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당화혈색소 측정기인 Greencare Alc에 대해 중국 Horron, 인도 Diasys India, 스위스 Medisys International SA, 일본 Arkray에 약 437억 원의 수출계약, 중국 Horron과는 콜레스테롤 측정기인 Greencare Lipid에 대해 115억 원의 추가적 수출계약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동사는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수술 외 치료법인 혈액투석을 위한 관류액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관류액이란 체내 조직이나 장기의 상태 유지를 위해 체내로 흘려주는 용액을 뜻하며, 체내 및 혈액 내 주요 이온인 Na⁺, K⁺, Ca²⁺ 등의 조성이나 pH가 정상적 혈액과 유사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 동사는 한국갬브로솔루션을 합병하면서 혈액투석액을 생산하였으며, 2019년 8월 충북 음성에 연간 410만 개의 혈액투석액을 생산할 수 있는 신공장을 건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현재 혈액투석액 한국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며, 2023년 12월까지 세계적 헬스케어 기업 Baxter와 국내 공급계약을, 2017년 5월부터 10년간은 보령제약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와 더불어, 추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동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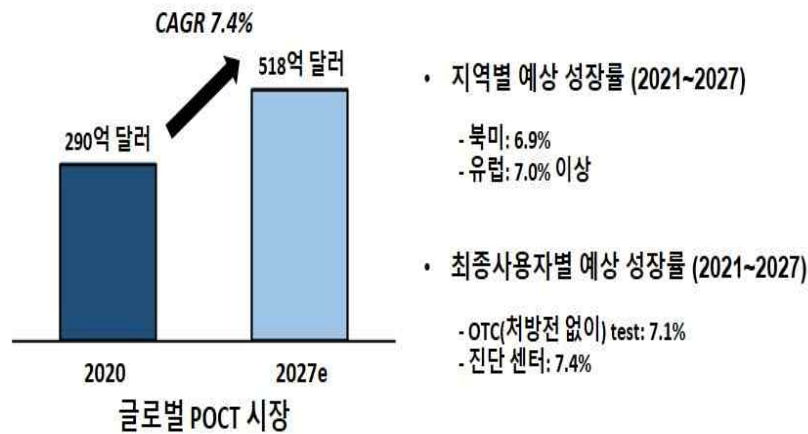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목표시장 및 경쟁사 현황

동사의 전체 매출 중 약 80%가 체외진단 관련 제품 및 상품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체외진단은 진단 및 치료 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더욱 각광받으며 진단의학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체외진단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보된 기술로 인한 POCT의 성능 향상과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인해 POCT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Global Market Insights의 시장조사자료(2021)에 따르면, 세계 POCT 시장은 2020년 29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CAGR) 7.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7년에는 518억 달러 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북미와 유럽 지역은 6.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처방전 없이 진행 가능한 POCT의 경우 7.1%, 진단 센터에서 진행되는 POCT의 경우 7.4%의 성장률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및 최종 사용자 별 시장 규모



*출처: Global Market Insights(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기존의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Roche Diagnostics, Abbott Laboratories, Danaher Corporation 등 해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는 기업들이 주도했기에,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및 점유율 확대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COVID-19 유행에 따른 진단의학의 중요성과 수요가 확대되어 국내외 공공기관의 바이오 헬스 사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체외진단 분야보다 비교적 최근에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진단 시장 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규 진단 마커를 발굴한 신규 업체의 시장참여가 활발해졌다. 분자진단을 이용한 현장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해외의 Cepheid나 Biomerieux, 국내의 씨젠이나 옵토레인, 혈액을 이용한 현장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국내의 휴마시스나 비비비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동사 또한 자체개발한 현장진단 시스템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의 개발도상국 시장점유율 확대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기술사업 분석

동사는 2018년부터 중국, 인도, 스위스, 일본의 회사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현장진단 시스템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전 세계적인 COVID-19 발생에 발맞춰 COVID-19의 진단 시스템 또한 개발하여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사의 인지도가 제품/서비스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해외 진단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사업성과 및 매출확대는 동사가 해외진단 기업으로서 국내외 입지를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동사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장벽과 핵심기술 관련한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발전은 동사의 현재와 미래의 기술사업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II. 재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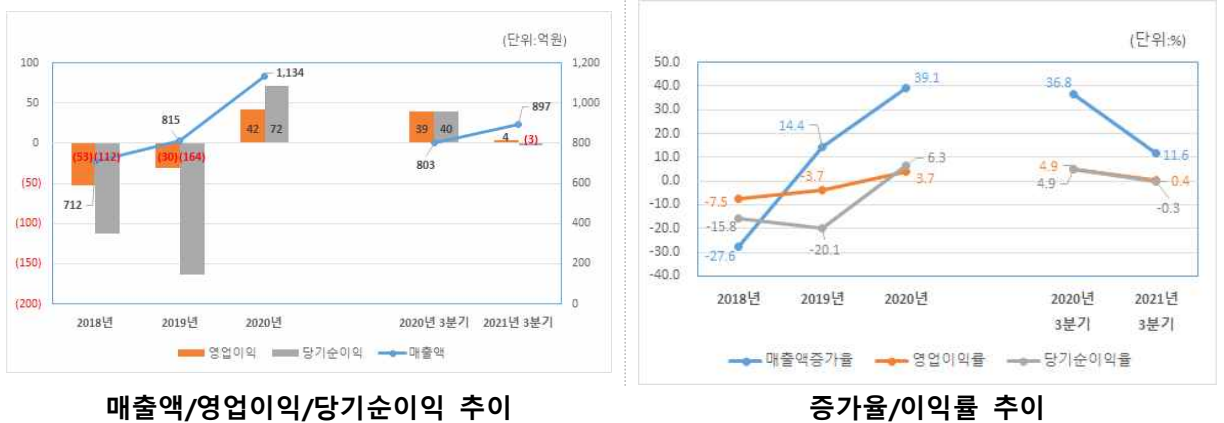
실적 증가 및 수익성 개선

동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진단키트 수출 호조 및 혈액투석액 등 주요 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수익성 또한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2021년 3분기 기준으로도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진단시약 수요 확대 등으로 매출 1,000억 원대 돌파

동사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인 업체로, 2020년 연결기준으로 (주)녹십자메디스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매출 유형은 진단상품 및 의료기기 부문(48.5%), 진단제품 부문(17.4%), 혈액투석액 부문(17.0%), 당뇨 부문(8.1%), 혈액백류 부문(7.2%), 기타 용역 부문(1.8%)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진단키트 관련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1% 증가한 1,134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그림 3.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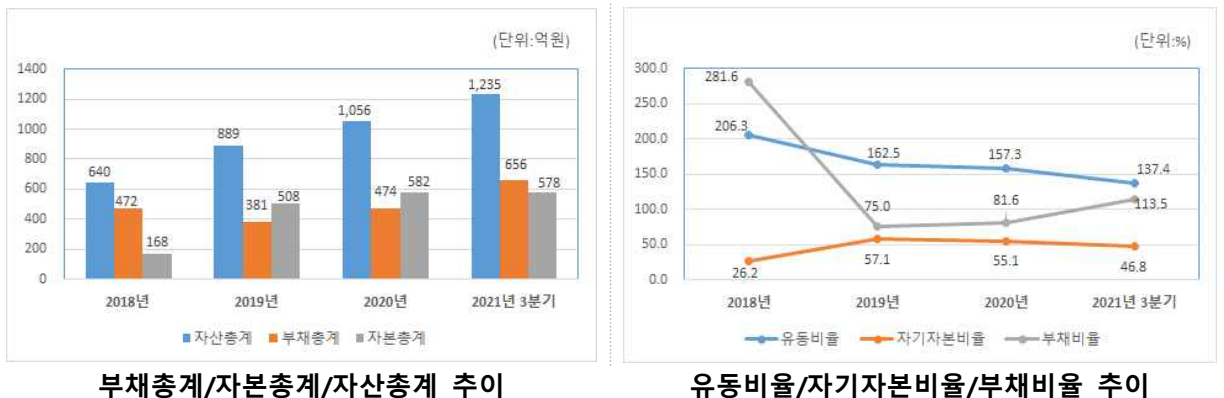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그림 4.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 적자 지속되던 중, 당기 흑자 전환

2020년에는 적자사업이던 혈액백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및 매각한 가운데, 혈액투석액을 생산하는 충북 음성 제2공장을 본격 가동하였다. 기존 용인 공장 생산규모의 3배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바, 혈액백류 부문을 제외한 전 사업 부문의 호조로 전년 대비 39.1% 증가한 1,134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의 완화로 전년대비 개선된 매출액 영업이익률 3.7%, 매출액순이익률 6.3%를 기록하여 수익성이 흑자 전환한 바, 영업이익 42억 원을 시현하였고, 전기 중 발생했던 과징금 감경 관련 잡이익 가산, 유형자산손상차손 감소 등으로 순이익은 72억 원을 시현하였다.

2016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적자 상태를 벗어난 가운데, 당기에 혈액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진단시약과 의료장비 사업에 집중하는 등 사업 재편을 통해 실적 및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 2021년 3분기 매출 증가하나 손실 발생, 재무안정성 저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97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하여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체 매출에서 진단시약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 약 222억 원에 달하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원가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의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저하된 매출액영업이익률 0.4%, 매출액순이익률 -0.3%를 기록하여 순이익 적자 전환하는 등 업계 대비 미흡한 수익성을 나타냈다.

한편,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손실구조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지속하던 가운데, 2021년 3분기 말 적자 시현에 따른 자기자본 축소 및 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부채 규모 확대로 2020년 결산 대비 저하된 자기자본비율 46.8%, 부채비율 113.5%를 기록한 바, 업계 대비 다소 미흡한 재무구조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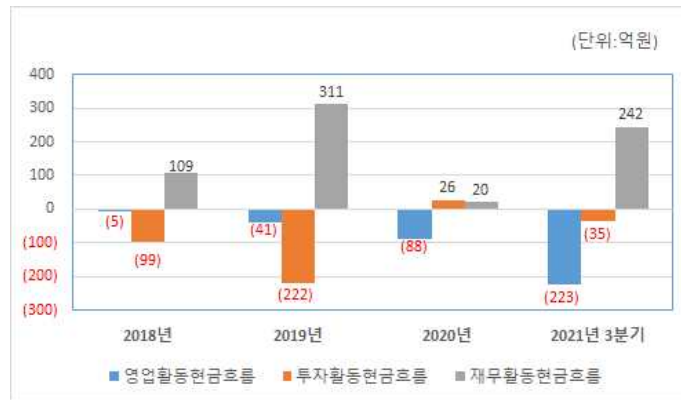
■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지속, 자금흐름 미흡

2020년 연결기준 순이익 시현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88억 원을 기록하여 부(-)의 상태를 지속하였다.

부족한 운전자금은 기보유 현금을 비롯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을 통한 유입자금 26억 원과 추가 차입금 조달 등 재무활동을 통한 유입자금 20억 원을 통해 충당한 바, 경직된 자금흐름을 보였다.

한편,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적자 시현 및 매출채권, 재고자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23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부족한 운전자금과 유형자산 취득 등 투자활동을 통한 35억 원의 자금은 대부분 차입금을 통해 충당하였으며, 기보유 현금 또한 감소하여 기말 현금이 4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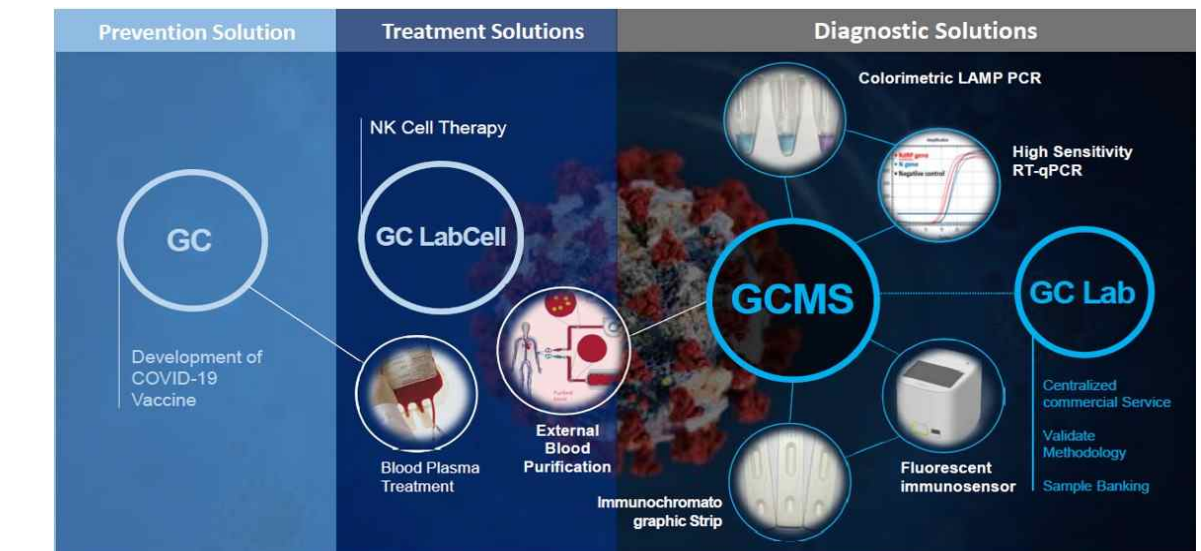
녹십자 계열사 및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 기반 기술사업 확장

동사는 녹십자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다소 부족했던 동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렸으며, 현재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와 협업을 진행하며 기술사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사업 이슈

동사는 녹십자 계열사와 함께 인류 질병 극복을 위한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의 전방위적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COVID-19에 대해 녹십자(GC)는 백신개발을, 녹십자랩셀(GC LabCell)은 치료제 개발을, 동사는 진단시약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전방위적인 COVID-19 극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의 계열사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사의 부족한 기술개발영역을 보완하면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GC LabCell 등과의 협업을 통해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동반진단 사업 포트폴리오 확보에 힘쓰고 있다.

그림 6. 녹십자 계열사의 COVID-19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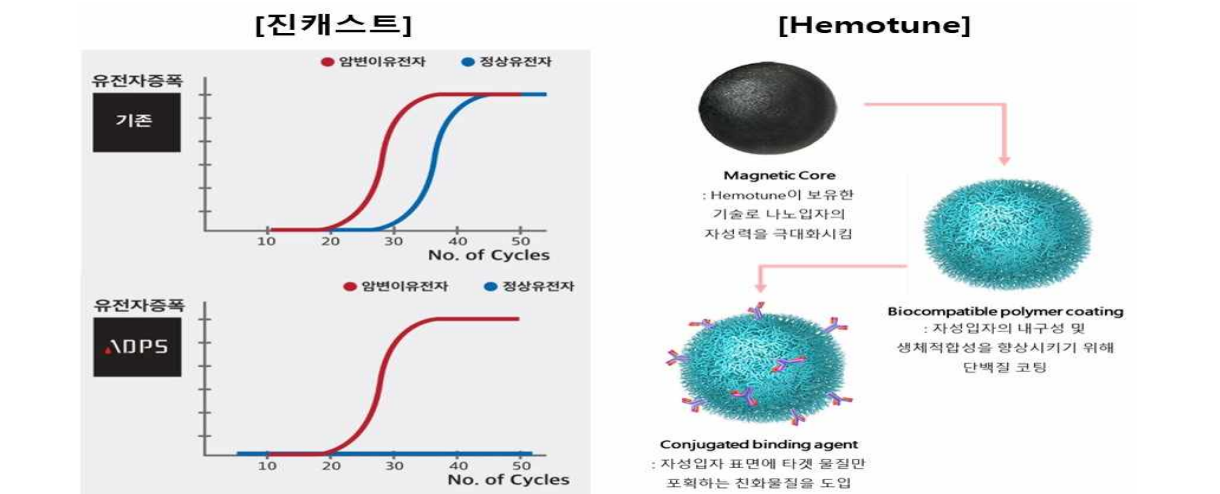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

동사는 또한 젠바디, Artron 등 항체진단에 강점이 있거나, 진캐스트, 엠모니터 등 분자진단에 강점이 있는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원재료 공급 및 기술 이전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COVID-19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로 항체진단 키트 2종, 분자진단 키트 2종, 항원진단키트 중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받아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사는 COVID-19 외에도 여러 질병에 대한 진단사업 및 혈액투석액 확장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협업하고 있다.

동사가 진단사업 확장을 위해 협업하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루티헬스(Rootee Health)와 진캐스트가 있다. 루티헬스는 국내 AI기반 안저검사 POCT 전문 스타트업으로, 개발도상국 등의 비안과 의료환경에 안질환을 진단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검안사 및 안과 전문의를 대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캐스트는 국내 액체생검 전문 스타트업으로, 자체 개발한 선별적 유전자 증폭 시스템(ADPS)은 혈액 샘플의 PCR 진행 시 암유전자(circulating tumor DNA)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0.01%의 검출 민감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 암환자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동사가 혈액투석액 사업 확장을 위해 Hemotune 제품의 아시아 판매를 담당할 계획에 있다. Hemotune은 스위스 소재의 스타트업으로, 독성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성나노입자를 통해 혈액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혈액투석장치와 그 구성품을 개발하였다.

그림 7. 동사가 협업하는 스타트업의 기술 개념(좌: 진캐스트, 우: Hemotune)



*출처: 동사 IR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기술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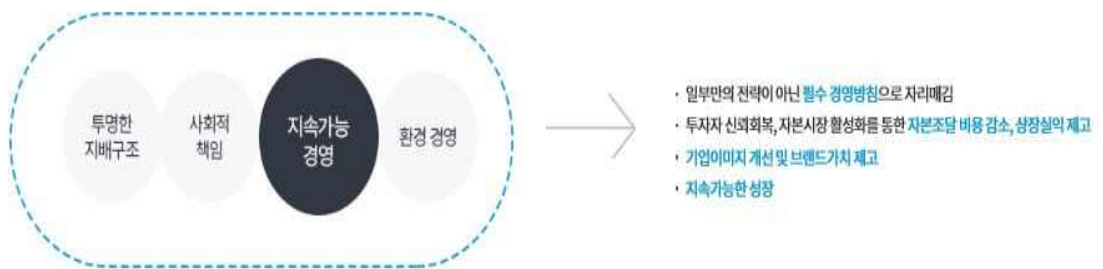
질병 예방 및 개인 맞춤형 의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더 정밀하면서도 진단이 간단한 POCT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까지 동사의 당뇨병 진단 회사 인수와 진보된 POCT를 위한 기술개발, POCT 관련 매출 및 수출 성과는 동사의 세계 체외진단 시장 참여 및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녹십자 계열사 및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의 고도화 및 진단영역 확장은 기존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사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다.

동사의 혈액투석액 사업은 동사 자체 매출의 15% 미만을 차지하지만, 국내 해당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기술사업 다각화 및 매출 안전성을 보여준다. 국내외로 신부전증 환자의 증가와 이를 위한 혈액투석 치료법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의 고도화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동사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평가는 기업엔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QESG가 있다.

그림 8. ESG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2021)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국내 상황에 적합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분야별 진단 항목은 정보공시 분야로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등의 문항을 설정하였으며, 환경(E) 분야로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등의 문항을, 사회(S) 분야로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등의 문항을, 지배구조(G) 분야로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배당정책 및 이행 등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은 ESG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각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생명과학 분야의 일부 대기업, 동사 사업과 관련된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

표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제약/생명과학 분야 기업 ESG 등급 현황 (2020 평가 기준)

기업명	기업코드	ESG 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주요 사업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B+	B	A	B+	의약품 위탁생산
셀트리온	068270	B+	B	B	B+	바이오시밀러
씨젠	096530	D	D	C	D	체외진단
녹십자	006280	B+	B+	B+	B+	의약품 판매/백신개발
녹십자랩셀	031390	C	D	B	B	면역 치료제
녹십자셀	031390	C	D	B	B	세포치료제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서스틴베스트(2021)의 등급은 AA, A, BB, B, C, D, E 7등급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산 규모별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상기 명시된 제약/생명과학 분야의 기업 중 서스틴베스트에서도 ESG 등급평가를 받은 기업과 그들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표 3. 서스틴베스트의 제약/생명과학 분야 기업 ESG 등급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전체 등급	규모별 등급	자산 규모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B	B	2조 이상
녹십자	006280	A	BB	2조 이상
녹십자랩셀	031390	B	BB	5천억 이하

*출처: 서스틴베스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에서 ESG 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질문지 및 공개 자료를 통해 ESG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했다.

동사의 환경정보 공개 및 환경 경영 조직은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 교육의 시행과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이 확인되며, 제품 제조 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와 용수사용을 절감하는 등 환경경영 요소가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ISO14001(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사업 부문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의료기기	남	107	8	115
	여	27	10	37
합계		134	18	152

*출처: 3분기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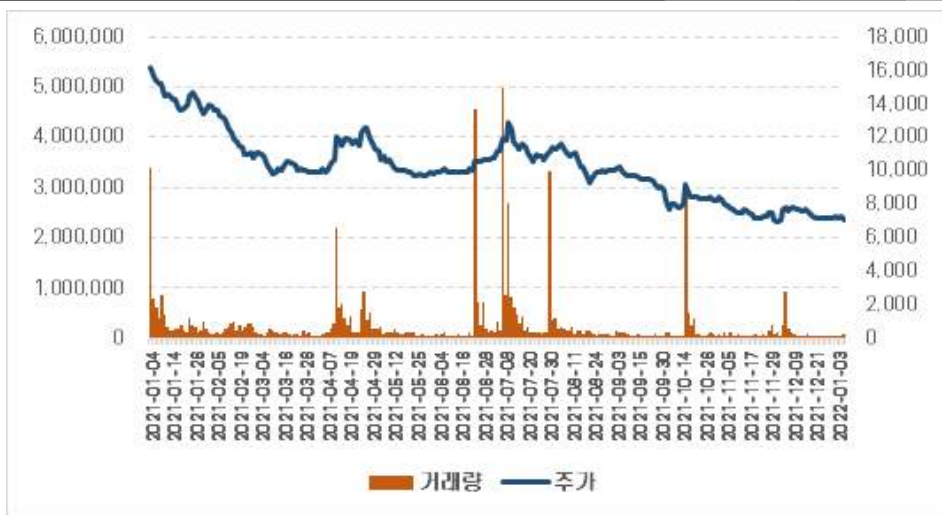
한편,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 총 152명의 직원 중, 기간제 여성 근로자는 37명(약 24%), 기간제 근로자는 18명(약 12%)으로 확인된다. 협력사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 확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사 내 사회봉사단, 사랑의 헌혈, 온정의 바자회 등을 운영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배구조 부문은 정관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 제1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실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총 4명의 등기이사 중 1명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사 제출 자료 및 3분기보고서 내에서 대표나 이사회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감사 1인을 두고 있으나, 감사 업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계열회사 지분 표를 공시함으로써 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2.01)